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최미현¹ · 안권숙² · 민희홍^{3*}

¹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²초당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³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Preparing for National Examination in Test Anxiety

Mi-Hyun Choi¹, Kwon-Suk Ahn², Hee-Hong Min^{3*}

¹Dept. of Dental Hygiene,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djunct professor

²Dept. of Dental Hygiene, Chodang University, Professor

³Dep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dental hygiene students' test anxiety, and to use these factors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program that can reduce test anxiety through factors that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190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for the period from July 1 to August 30, 2022.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2.0 program.

Results: Factors influencing the test anxiety of the study subjects were 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ssignment difficulty preference, social support, and predictive power was 25.0%.

Conclu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upport and manage students' psychological health and social support in order to overcome test anxiet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dental hygienists.

Keywords Academic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Test Anxiety

Received on Nov 30, 2023. Revised on Feb 04, 2024. Accepted on Feb 13, 2024.

* Corresponding Author (E-mail: hhmin1@hanmail.net)

I. 서론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시험, 면접과 관련된 준비과정과 직접적인 취업 경쟁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시험 대비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과도한 시험불안은 학업과정과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1]. 이러한 불안은 불길한 예감으로 편안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긴장되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2]. 시험불안도 불안의 한 형태이며, 시험불안은 시험이라는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1], 심한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는 동안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3].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위한 많은 양의 학습량을 감당해야 하고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적지 않다[2,4]. 이는 실기와 필기를 같이 진행하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높은 시험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신체적 불안이 올 수 있어 평소의 실력보다 낮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낮추고 학업과정에 적응을 높여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변수 중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고[5], 개인의 환경 안에서 애정, 공감과 같은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적응을 높여 자신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 시험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에서 가족의 지지가 가장 영향이 있었으며[3]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불안수준과 우울감이 낮고 성취동기와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6], 또한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7].

또 다른 변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을 완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고[3][9], 이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8].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며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와 김[11]의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세부항목인 과제 수준 선호와 자신감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12]의 연구에서는 학업 중 겪을 수 있는 좌절, 압박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학업 탄력성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가시험이라는 중요한 시험을 대비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심리적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험 불안을 완화하고 학업의 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규명하고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 불안을 낮추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기·충청·강원·전라 지역의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으로 배포 후 연구대상자가 작성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72 명이고, 최종 분석대상자는 190명이었다.

2. 연구방법

연구 도구로는 일반적 특성 5문항, 시험불안 20문항, 사회적지지 12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시험 불안은 김[13]이 연구에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4]의 사회적 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박[15]의 도구로서 하위요인으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로 28문항으로 구성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시험불안 0.941, 사회적지지 0.941, 학업적 자기효능감 0.795,이었다. 연구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불안,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변수의 점수는 산술 평균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는 t-검정과 일원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고,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에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수의 평균점수

연구 대상자의 시험불안은 3.03점, 사회적 지지는 3.95점이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2.92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은 자신감 2.75 점, 자기조절 효능감 3.40점, 과제난이도 선호 2.92점 이었다 <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 정도를 보면, 경제상태 ($p=0.038$), 학업 스트레스($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경제 상태에서는 유의성이 없었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다'에서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변수 간 상관분석

시험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신감($r=0.346$)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조절 효능감($r=0.459$)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자신감 ($r=0.356$)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 효능감($r=0.255$)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r=0.556$), 과제난이도 선호($r=0.311$) 는 음의 상관관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Unit: Mean±SD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Cronbach's α
Test anxiety	20	1.20	5.00	3.03±0.84	0.941
Social support	12	1.83	5.00	3.95±0.74	0.941
Academic self efficacy	28	2.25	3.50	2.92±0.18	0.795
Confidence	8	1.00	3.75	2.75±0.49	0.765
Self-regulating efficacy	10	2.20	5.00	3.40±0.43	0.732
Assignment difficulty preference	10	1.90	3.70	2.92±0.30	0.789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Variables	Divisions	N	Test anxiety	t or F (p^*)
Age	≤21	115	3.11±0.83	1.663 (0.098)
	≥22	67	2.89±0.84	
Grades	Low	42	3.28±0.96	2.617 (0.076)
	Middle	112	2.95±0.74	
	Advanced	28	2.97±0.94	
The state of the economy	Bad	33	3.36±0.95	3.327 (0.038)
	Usually	141	2.96±0.79	
	Good	8	2.85±0.95	
Major satisfaction	Bad	20	3.09±0.90	0.393 (0.676)
	Usually	130	3.05±0.84	
	Good	32	2.91±0.76	
Academic stress	Low	13	2.31±0.86 ^a	15.113 (<0.001)
	Usually	105	2.88±0.71 ^b	
	High	64	3.41±0.87 ^c	

*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e) for three
^{a,b,c}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3> Correlation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Test anxiety	Social support	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ssignment difficulty preference
Test anxiety	1				
Social support	0.009	1			
Confidence	-0.346**	-0.356**	1		
Self-regulating efficacy	0.459**	0.255**	-0.556**	1	
Assignment difficulty preference	-0.004	-0.020	-0.311**	0.195**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계가 있었고,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r=0.195$)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험불안을 종속변수로 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소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사회적 지지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592-0.883으로 나타났으며($F=16.049, p<0.000$), 분산팽창인자(VIF)는 1.133-1.690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감($\beta = -0.235, p<0.006$), 자기조절 효능감($\beta=0.405, p<0.001$), 과제

난이도 선호($\beta=-0.160, p<0.021$), 사회적지지($\beta=-0.181, p<0.010$)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0%이었다<Table 4>.

IV. 고찰

본 연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을 낮추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은 3.03점으로 수도권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와 김[11]의 연구 2.7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선정 차이로 국가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져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조바심과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교수 상담 활성화,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와 이[6]의 연구에서는 2.84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보전계열이지만 학과 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과목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3.95점으로 나타나 3.68점으로 나온 임과 윤[16]의 연구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과 백[17]의 연구에서는 3.59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계열이라는 연구대상자 범위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별 활동을 강의 과정에 다양한

주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2.92점이었고 하위요인은 자신감 2.75점, 자기조절 효능감 3.40점, 과제난이도 선호 2.92점이었다. 최와 김[11]의 연구에서는 2.99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김[12]의 연구에서는 3.44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최와 김[11]은 수도권 지역, 김[12]은 대전·충청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지역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시험을 앞둔 환경이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추후, 지역별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비교해보는 연구를 계획하여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된다. 하위요인에서는 최와 김[11], 남과 최[18] 연구에서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김[19]의 연구에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나타나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신감 순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모두 과제난이도 선호가 가장 낮게 나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신감이 가장 낮게 나와 차이가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수를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기별, 대상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학과 내에서 학업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업과정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과 보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 정도를 보면, 경제상태, 학업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다’에서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염과 성[20]의 연구에서 시험불안이 경제상태와 유의하지 않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태가 연구대상자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반된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test anxiety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591	1.105		3.251	0.001		
Confidence	-0.401	0.143	-0.235	-2.807	0.006	0.592	1.690
Self-regulating efficacy	0.783	0.150	0.405	5.210	<0.001	0.686	1.458
Assignment difficulty preference	-0.449	0.193	-0.160	-2.329	0.021	0.883	1.133
Social support	-0.203	0.078	-0.181	-2.589	0.010	0.849	1.178

$R^2=0.266$, adjusted $R^2=0.250$, $F=16.049(p<0.000)$, Durbin-Watson: 2.002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05$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학업과 취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해볼 수 있는 선행 논문이 많지 않아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시험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신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조절 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정[21]의 연구에서 시험불안이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조절 효능감의 상관관계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 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노와 이[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자신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2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는 각각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이와 정[2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상관관계 연구결과에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사회적지지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고, 가장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자기조절 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0%이었다. 최와 김[11]의 연구에서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와 정[21]의 연구에서는 자신감이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각각 차이가 있었고, 이는 대상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대상자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습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마다 실습을 나가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설문내용에 와닿는 정도도 차이가 있어 연구 대상의 기준이 일정치 않고 결과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지지, 학습적 자기효능감,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시험불안의 정도, 영향 요인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추후, 상관관계에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정확한 검증과 연구대상자 범위를 졸업예정인 학년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통해 시험불안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편의추출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설문을 배포 후 작성하였다.

1.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은 3.03점, 사회적 지지는 3.95점이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28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은 자신감 2.75점, 자기조절 효능감 3.40점, 과제난이도 선호 2.92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 정도를 보면, 경제상태($p=0.038$), 학업 스트레스($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경제 상태에서는 유의성이 없었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다’에서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3. 시험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신감($r=-0.346$)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조절 효능감($r=0.459$)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연구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감($\beta=-0.235$, $p<0.006$), 자기조절 효능감($\beta=0.405$, $p<0.001$), 과제난이도 선호($\beta=-0.160$, $p<0.021$), 사회적지지($\beta=-0.181$, $p<0.010$)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0%이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앞둔 치위생학과 학생이 시험불안을 극복하고 시험에 잘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지지 환경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Cho OH, Hwang KH, Lim JM: Influence of fear of evaluation, test anxiety, and social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7):56-66, 2017.
DOI: 10.5392/JKCA.2017.17.07.056
2. Yoon SU, Kwon YS: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91-88, 2015.
DOI: 10.15207/JKCS.2015.6.5.091
3. Ju ES, Bang YS: Effect of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est anxiety: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10(2):85-93, 2022.
DOI: 10.15268/ksim.2022.10.2.085
 4. Kim YS, Kim YH: Effects of brain respiration program on test anxiety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2):251-261, 2013.
DOI: 10.5932/JKPHN.2009.23.2.251
 5. Oh YJ, Lee ES, Park MS, Lee EM: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787-797, 2021.
DOI: 10.37727/jkdas.2021.23.2.787
 6. Noh YG, Lee YS: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est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1):633-643, 2016.
DOI: 10.5392/JKCA.2016.16.11.633
 7. Yang YK, Han KS, Bae MH, Yang SH: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Stress* 22(1):23-33, 2014.
DOI: 10.17547/kjsr.2014.22.1.23
 8. Byun JY, Kang MJ: Effect of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need for approval,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est anxiety: path analysis comparing boys and girl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2): 77-302, 2016.
DOI: 10.21509/KJYS.2016.12.23.12.277
 9. Lim SY: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2(4):23-30, 2022.
DOI: 10.22156/CS4SMB.2022.12.04.023
 10. Song MS, Lee IS: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social presence, and test anxiety on learning flow in non-ace-to-face cla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2):86-94, 2022.
DOI: 10.5762/KAIS.2022.23.2.86
 11. Choi DH, Kim SK: Effect of mental health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est anxie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5):697-706, 2020.
DOI: 10.13065/jksdh.20200064
 12. Kim DH: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academic resilience dental hygiene stud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0): 46-252, 2020.
DOI: 10.22156/CS4SMB.2020.10.10.246
 13. Kim IR: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ocial support, academic self-concept, and the test anxiety of the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3.
 14. Zimet GD, Dahlem NW, Zimet SG, Farley GK: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30-41, 1988.
DOI: 10.1207/s15327752jpa5201_2
 15. Park MJ: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2017.
 16. Lim SA, Youn HJ: Related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6):935-942, 2014.
DOI: 10.13065/jksdh.2014.14.06.935
 17. Park JY, Park SM: Influence of colleg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 level of college students who majors in health or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49(2):180-186, 2017.
DOI: 10.15324/kjcls.2017.49.2.180
 18. Nam YO, Choi MH: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cademic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4):623-629, 2015.
DOI: 10.13065/jksdh.2015.15.04.623
 19. Lee GH, Kim JY: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4):33-57, 2014.
DOI: 10.22955/ace.17.4.201411.33
 20. Yeom EY, Seong JA: The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job-seeking stress, self control on test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7(2):57-69, 2016.
 21. Lee YM, Joeng JR: The relationships with academic self

- efficacy and test anxie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New Horizons of Educational Research* 38:57-75, 2015.
22. Lim IR: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ognitive strategy on the academic adaptation of underachieving college students: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Forum For Youth Culture* 60:117-146, 2019.
DOI: 10.17854/ffyc.2019.10.60.117